

장성 K화백의 집

Artist K's Residence

강남구 / 강남건축사사무소
by Kang Nam-Gu

이 프로젝트는 나의 관심사인 전통건축에 대한 현대적 해석의 한 결과물이다. 전통은 관리하고 보기 위한 과거 보존의 유물이 아닌, 미래에 걸맞게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사유의 보고가 되어야 한다. 본 프로젝트에서도 이를 반영코자 했으며, 특히 전남 나주군 다도면에 위치한 흥기음 가옥이 담고 있는 건축적 내용을 「장성 K화백의 집」에서 해석, 표현코자 했다.

1. 건축의 본질

건축의 본질은 공간이라 생각된다.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바닥, 벽, 천장, 기둥, 개구부 등과 같은 공간의 물리적 요소들, 그리고 그것들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영역성, 위계성, 방향성 등과 같은 공간의 구성원리들, 이와같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와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구분없이 건축의 주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시간이 흘러도, 장소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은 건축의 본질은 건축에서의 영원한 에너지라 생각된다. 이것은 다가오는 각양각색의 현대건축에 대응하여 국건히 건축행위를 해나가는 바탕이 될 것이다. 건축의 변치 않은 본질을 찾아 나의 건축어휘를 삼고 싶다. 형태담닉의 함정을 경계하고 공간을 구성하는 벽의 내적 원리만을 잘 이해하여도 그것은 훌륭한 건축어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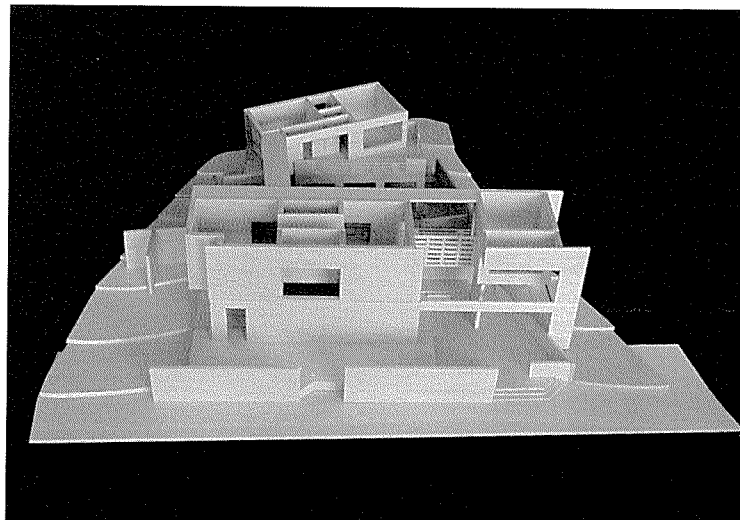
2. 건축체험

건축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의 결합체이다.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건축이론과 오관을 통한 다양한 건축적 경험이 동시에 요구된다. 건축에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으며, 도면이나 모델, 사진으로 이해하기 부족한 장면과 상황은 얼마나 많은가? 건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리와 함께 발로 뛰어 마음으로 느껴야 할 것이다. 언어로만 정리하기엔 어딘가 부족하고 허전한 느낌이 든다. 최근에 오관을 통한

공간의 체험적 시나리오들이 작성되는 것도 이와 같은 것과 상통하리라 생각된다. 기능과 효율성 위주에서 벗어나 비록 돌아가더라도, 좁은 통로를 기다려도 목적공간으로 가면서 다양한 공간이나 뜻밖의 공간을 체험하는 것 역시 즐거운 공간여행이 될 것이다.

3. 전통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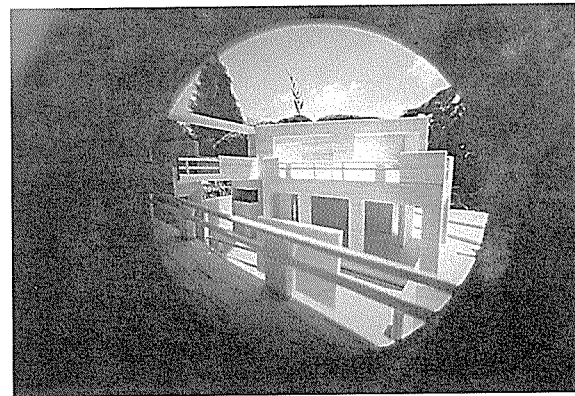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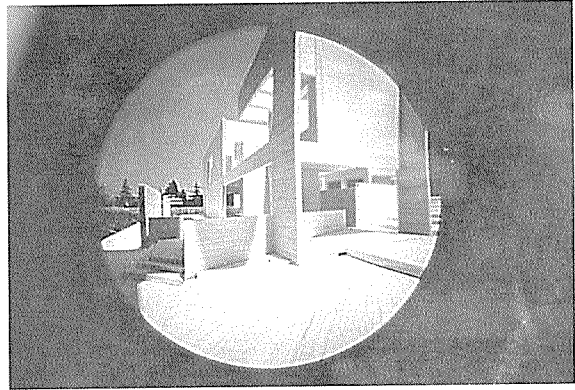
전통건축에 대한 이해는 개별 건축물에서, 외부공간으로 그리고 채의 집합에 이르기면서 넓고 깊어지고 있다. 아울러 당시의 삶과 의식, 환경을 반영한 인문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있으면서 전통건축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 진정한 전통의 표현은 전통건축의 건축 요소가 아닌, 옛 사람들의 정신적 삶을 건축 공간으로 또는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부단히 전통을 표현하는 건축가 역시 건축물에서 시작하여, 외부공간인 길과 마당에서, 그리고 집합의 이론인 채의 개념에서 자신의 건축을 재현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현대 건축가에게 부여된 역할 중 하나는 전통건축에 담긴 당시의 삶과 시대정신을 해석하여 이를 현대건축에 반영하는 것일 게다. 우



리건축문화의 맥을 잇고 우리 전통건축에 대한 값진 느낌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 역시 이 시대 건축가에게 부여된 하나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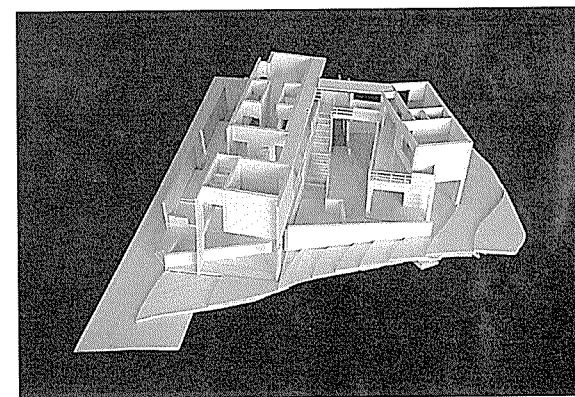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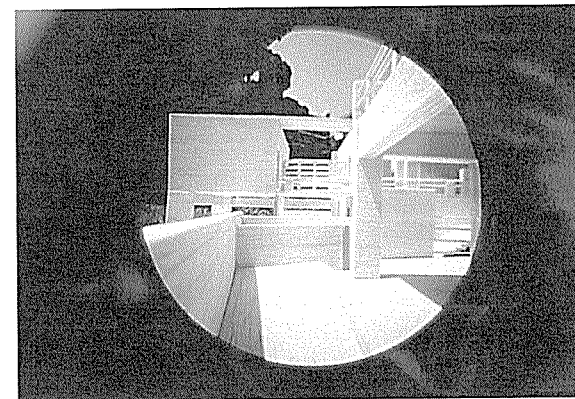
4. 지역건축

건축은 공간과 시간의 해석이라 생각한다. 공간은 지역 및 장소를 고려하여 대지와 삶자체의 표현이며, 시간이란 현재에 충실하면서 과거와 미래와의 연계를 유도한 역사의 표현이다. 지역적 건축이 세계적 건축이며, 지역적 건축가 역시 세계적 건축가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자신의 명쾌한 건축어휘나 이론없이 선진외국의 우수건축물에서 낮은 건축요소들을 적당히 골라주는 건축가가 얼마나 많은가? 또한 유명 외국건축가의 최근 작품을 여과없이 받아드려 최고의 세련미가 건축인 양 착각하는 예비건축가들도 있다. 나 역시 그렇지는 않다고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어느지역보다도 옛 사람들의 멋과 맛이 있고 숨결이 느껴지는 남도의 전통문화를 항상 체험하면서 남도지역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며 사랑하고 있는 마음 하나가 나의 건축활동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큰 믿음이 있다. 지역에 대한 굳은 믿음이 건축을 통해서 표현될 날을 기다려 본다. 남도인의 삶, 감성, 의식, 시대정신 등 인문 사회적 환경과 지형, 기후, 풍토 등 자연환경 그리고 남도의 맛과 멋, 여유 등의 정신문화를 건축화하고 싶다.



5. 전남 나주군 흥기음 가옥

흥기음 가옥은 전남 나주군 다도면에 위치해 있다. 흥기음 가옥은 일반적으로 유명 전통 상류가옥으로 알려진 3-4백년의 오랜 역사가 있는 명문 사대부나 고위관료 및 학자 등이 생활하는 특수계층의 가옥이 아닌 불과 100년전에 세워진 일반 부농의 가옥이다. 비록 당시 주인의 신분계급이 높지 않고 건축역사가 짧다할지라도 본 가옥에서는 한국 전통가옥에서 보여지는 모든 건축 요소와 원리가 존재한다. 본 가옥은 일반 전통 상류주택에서처럼 행랑채, 사랑채, 안채 및 사당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담장 및 문의 높이와 위치에 따라 연계성을 유지한 채 각 영역의 독자성을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막힘과 트임의 연속, 밝음과 어둠의 연속, 뒤편우선식의 연속된 동선, 사선에 의한 공간의 역동성, 긴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꺾인 동선, 이에 따라 구분된 채와 마당의 영역 등 공간의 규범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작은 대지 속에서 다양한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좋은 건축물을 접했을 때 느껴지는 체험적 감흥을 지역성과 역사성의 측면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이 나의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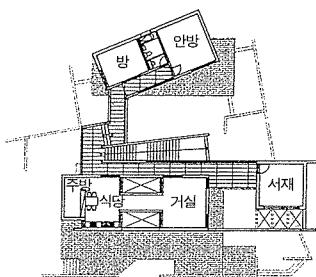
6. 전남 장성 K화백의 집

흥기음 가옥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을, 그리고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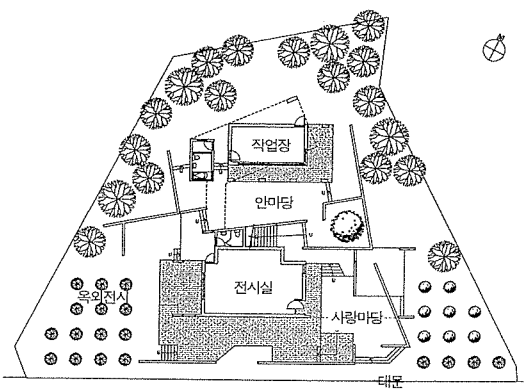
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전통건축 안에서 물질적이 아닌 비물질적인 것, 그곳에서 마음과 정신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말로는 설명될 수 없고,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 존재하는 것, 그것을 찾고 싶다. 건축에 대한 전문가, 비전문가 구분없이 한국인이란 모든 다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것, 설명되지 못하지만 즉시 체험되는 것, 머리로 생각하기 보다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다. 시간과 삶을 재해석하여 흥기응 기옥에서 받은 그 느낌을 건축의 본질, 건축체험, 전통과 지역성을 고려하면서 조금이라도 장성 K 화백의 집을 통하여 전달하고 싶다. 편안한 느낌, 그것을 쌓고 있는 현상들. 살아서 숨쉬고 인간이 중심되는 활력 넘치는 살아있는 건축을 재현하고 싶다.

이상과 같은 나의 생각과 체험을 바탕으로 「장성 K 화백의 집」을 건축하였다.

대지위치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84-2		
대지면적	765.2㎡	건축면적	285.67㎡
연면적	273.44㎡	층수	지상2층
용도	주택(화가의 집)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외부 마감	노출콘크리트, 블록, 목재		



2층평면도



1층평면도

